



조선 왕조의 숨결이 담겨진 역사의 고도이며, 교육·문화·산업이 고루 발달했다는 근대도시 수원에 자리잡은 삼성전자(주)를 찾았다.

이 회사는 21세기에 5대 메이커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사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IMF의 거센 파도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삼성전자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회사이며, 이번 탐방은 화보협회 동부지부 추천과 삼성전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일반 사항

1969년 회사를 설립 운영해온 삼성전자(주)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 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34만 1198평에 이르고, 건물동수로는 1단지 57개동, 2단지에 43개동으로 총 100동이 나 되며, 연면적 72만 2633제곱미터에 달하는 매머드 공장이다.

건물구조는 대체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등으로 불연구조 이상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우리 생활과 늘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로 TV, 비디오, 컴퓨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에 대량생산 체제로 가동하고 있는 굴지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이다.

◎ 방화시설

소화설비로는 기초 소화설비인 소화기가 5000여개로 건물별, 시설·설비별, 위험도별로 적정하게 비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옥내 소화전 1017개소, 옥외 소화전이 183개소나 설치되어 있다.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각 시설별로 적정하게 운영되며 감지기 숫자만도 2만73개에 달하는 설비다.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등 공장 특성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며, 헤드수는 총 4만5000개에 달한다.

이외에 특수장소에 할론 소화설비가 89개소, CO₂ 소화설비가 6개소, NAF-SⅢ 설비가 15개소에 걸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체소방대가 조직되어 A·B조로 운영되며 소방차가 5대, 구조대 2대, 구급차 1대를 보

유하고 지역 소방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 방화관리 및 조직현황

방화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각 사업부 방재센터의 근무자가 1차 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 방재센터에서는 정예요원(청원 소방대)들이 수신반과 카메라를 통해 시각 및 청각의 2중 감시 체제로 운영하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시설관리는 각 사업부(10개)를 관할하는 환경 안전 전담자와 제조부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전사를 총괄 관리하는 환경 안전 부서로 운영되며 여기의 담당자만도 50여명이나 된다.

이와는 별도로 방화시설 전반을 관리, 정비, 점검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는 보기 드문 체제로 운영되어 물샐틈이 없어 보였다.

◎ 교육·훈련

기초안전교육으로 신입사원은 안전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고, 현업에서 직·반장 안전교육을 주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방재설비 일반 및 전문교육, 전기·소방·가스안전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매년 시행된다.

훈련은 소화전, 소화기의 실제 작동훈련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청원 소방대 중심으로 사업부 순회 훈련이 실시된다.

◎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

소방·방재는 물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해요인이 제거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2000년까지 수원사업장의 자동 소화설비의 100% 설치 및 제반 사고의 제로 베이스를 환경 안전 경영 목표로 하여 사장 이하 공장장, 각 사업부장이 월별로 환경안전업무를 직접 독려하고 있었다.

독려 내용으로는 매월 1회 녹색경영위원회를

열여 각 사업부의 환경안전업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 화재예방 업무에 대하여

관리적 측면에 관해서는 40만평에 달하는 규모에 걸맞게 소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청원 소방대를 비롯, 완벽한 소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화관리업무란 쉽지 않음을 항상 느낀다고 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사고로 직결되고 그 사고는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형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공장이다보니 방재설비 신, 증설 업무시마다 어려움이 있어 국내업체로는 최초로 전자업종의 실정에 맞는 “방재설비기준”을 제정하여 향후 전자그룹내 방화관리업무의 획기적인 장을 마련하였다고 자긍심이 대단했다.

화보협회와의 업무관계에 있어서는 협회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외에도 전기설비 위험성 평가, 사업부별 위험진단 등을 수검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적인 상호유대가 돈독함을 엿볼 수 있었다.

끝으로 회사의 자랑을 들어보았다.

삼성전자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한편 21세기에 세계 전자 5대 메이커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경영에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가 펼치는 그린 경영전략은 공해요인이 제거된 상품을 공급,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모토로 인류사회에 봉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환경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 획득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많은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